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도



승단은 좋은 벗의 등지

좋은 벗의 집단은 다른 아닌 승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전법을 시작하여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승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상가의 구성원은 비구를 위주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의 전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거기에 비구니와 재가자들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부처님은 상가의 구성원을 모두 좋은 벗이라 불렀다. 좋은 벗은 한문으로는 선지식(善知識) 혹은 지식(知識)이라 부른다. 산스크리트어의 칼야나타, 팔리어의 칼야나미트라(번역어이다. 이것을 현대어로는 좋은 벗이라 부르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선지식, 혹은 지식이라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이나 지식이란 용어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안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벗의 집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알려주는 일단의 대화 **<잡아함경> 27-15**에 실려 있다.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대덕이시여,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좋은 벗을 지니고 있고, 좋은 등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이도(道)의 절반을 성취

않고, 다시 다른 이름을 만든다. 마치 여러 개의 이름이 다른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 꼭 같은 한 맛이 되어 다른 이름이 없는 것과 같다 (둘째) 온갖 중생들이 수염과 머리카락과 세 가지 법복을 가지고 집을 떠나 도를 배우고 무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내 법에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마치 저 큰 바다에 여러 강이 들어와도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있다. 이상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각 다른 종성 즉 카스트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벗의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사문 석자(釋子: 석가모니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과거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수행하고 법답게 실천하는가가 중요시 되었다. 그것을 많은 강을 받아들이며 더함도 덜함도 없이 한결같은 바다에 비유하고 있다. 둘째 카스트에 대한 부정(제급모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 교단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셋째 계급모순의 타파는 직업에 대한 선택권과 평등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회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태어나면서 빈부귀천이 정해지고 직업이 정해져 있었던 당시의 사

평등·자유·인간적 행복 중시 승가를 사회변화 '진원지'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난아, 사람들은 나를 좋은 벗(선지식)으로 삼아 놓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늙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병들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병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죽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아난아, 이것만을 생각해도 좋은 벗을 지니고, 좋은 벗의 등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 도의 전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절반이 바로 좋은 벗의 집단인 승가라 생각하고 있던 아난에게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 대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벗을 지니고, 좋은 벗의 등지에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삼귀의를 통해서도 상가가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중의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보배스러운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중전이 바로 **<중집아함경> 42**의 수룬이나 **<중지부경전> 8-19**의 파하라다이다. 여기에는 "(첫째) 네 가지 종성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법안에서 사문이 되면 그 전의 이름을 쓰지

회제도에 대한 전연적이면서도 직설적인 부정과 비판이다. 넷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은 열반이며, 열반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점을 바다가 강을 받아들이며 차별하지 않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인도적 전통에서 출신성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좋은 벗의 집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평등과 자유와 인간적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의 전초기지로 승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급모순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의 인도사회에서 그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비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치, 사회적 대립과 투쟁을 감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비폭력과 자비심을 중시했던 부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승가를 사회변화의 진원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좋은 벗의 집단이 불교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본지 삼일논설위원·불교학 박사>

그러나 스님의 원력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원력을 가슴 가득 품고 임진각으로 걸어온 것이 올해로 꼭 30년 전이었다. 허름한 농가를 얻어 도량을 삼고 군부대를 드나들며 장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철조망 앞에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목탁 치고 절하며 기도했다. 지역 경찰서에서는 경승으로 활동하며 교회사업도 했다. 서부전선을 수행도량으로 30년을 한결 같이 살아온 일선스님을 만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평화통일사 요사채에는 50여 차례의 근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인근 부대 군인들이 법회를 보러 온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가득 군인들이 앉아있고 한쪽에서는 한 명씩 순서대로 노스님 앞에 나가 뒷가를 적는다. 통일 발원 일인일자(一人一字) 사경(寫經)이다. 한 사람이 법화경의 단 한 글자를 적으며 통일을 염원하고 다음 사람이 이어 적는 릴레이 사경이다. 앞서라 이어 한 글자를 적고 앞에 '평화통일'이라 새겨진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다시 사경 동참자 인명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는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경이 신기한 듯한 표정 이지만 장병들은 서툰 붓글씨에 정성을 담았다. 이날 법회에 온 장병들은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맡은 제1건설단 소속이다. "여러분은 여러 지역에서 차출되어 왔지만 역사의 현장에 일구는 그이달로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해. 나는 이곳에서 30년이 넘도록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꿈에서나마 통일되는 걸 보는 걸 보고 싶어" 일선스님은 장병들에게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장병이들 절고서서 쉬쉬하며 이어가는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30년간 남북통일 염원



가까이 일선스님

△임진각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통일염원'이란 화두로 정진하고 있는 일선스님

초거울 임진각에 서면 막막하다. 어디로 눈길을 주어야 할지. 자유를 타고 시원스레 달려 왔지만 더 이상 달릴 자유가 없는 곳. 임진각에서 맞는 분단의 현실이란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허전함이다.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최전방에서 오매불망 통일의 염원을 화두로 삼고 정진해 온 30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선스님이 잘 이름조차 평화통일사라 명명한 이유는 알 수 있다.

'이루겠다'는 생각·노력이 원력 실천 뒤따르지 않으면 허사

"자비야. 끊어진 땅 잇는 것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한 맺힌 눈물을 펄펄 쏟아 내는 걸 봤겠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고 끊어진 나라가 이어져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자비지. 바로 그 한 생각을 일으키고 홀몸으로 임진각까지 걸어 온 거야.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난 반드시 통일을 보고 죽을 작정이야. 반드시 내 눈으로 통일을 보겠다는 일념이지." 하나로 돌아가는 것. 일선스님의 통일염원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도 없다. 오직 끊어진 것을 이어 원래의 모습, 본래의 그 하나로 돌아가길 바라는 일념일 뿐이다. 그래서 서부전선 전초기 도량이고 수많은 장병들이 도반이다.

만 도를 구하기보다 속세에서 삶의 고통을 나누며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도 불성을 추구하는 도리일 수 있지. 나라의 분단과 거기서 유발되는 민족적 슬픔,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이 주는 공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통일이 되어야 민족이 편안해지고, 편할때 도를 얻는 일도 용이하게 아니겠어? 처음 임진각에 왔을 때는 허름한 농가를 빌려서 도량을 삼았다. 3년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한 때 가까이서 보았던 고암스님이 찾아왔다. 당시 조계종 종장이었다. 큰스

“불성이 원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더럽히면 우주 전체가 더러워지는 법. 우리가 지닌 불성을 맑게 하는 것이 수행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이란 것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거든. 그래서 도를 두는 사람들은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산에서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도 윤회의 한 과정에 있어. 꼭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만 윤회인 것은 아니지. 뭐든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앞과 뒤가 있잖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 같아. 그 인과와 과정이 돌고 도는 게 바로 윤회야. 그리고 원력이란 말을 들어 보았을 거야.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원력인데 생각으로 원하기만 하고 행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원력은 이뤄질 수 없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원력이야.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어.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에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이 바로 통일을 이루는 길이란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해. 여러분이 공사를 하는 길에는 그런 염원이 가득하게 맺어야 해. 그래야 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 이 늙은 스님의 당부야."

일선 스님은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공사현장에 나갔다. 요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에 나간다. 통일의 길을 뒤는데 구경만 할 수 없었던 것. 스님은 장병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무사고 기원 기도를 한다. 지뢰로 인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스님은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평안을 지나 시베리아까지라도 이 공사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 스님은 어디까지든 따라가고 싶다. 일선스님은 어째서 통일을 화두로 삼았을까?

**아직도 구도(求道)하십니까?**

진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고통과 죽음을 초탈한 3일간의 체험

부처님 당시 '마미가설'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 이미 칠니(돈오)에 깨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테크닉(법안)이 중요입니다. 삼각과 이상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안트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확실하고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수련 과정**

本性 (3일)	無心, 無我, 無分別智, 涅槃소멸, 의의식소멸
無分別智 (2일)	空性, 寂滅,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마음의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無上覺 (2일)	거듭남의 비밀, 삶의 기쁨

**총마음 禪林院**  
0331435-6166, 435-8166

밝은 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선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리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실 수: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9.5평
- 부대시설: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사계중) 등.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임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이사장 석정화

※ 공영주, 맹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성리실버타운 가평사무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본부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5번지 동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원리를 아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떨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문,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영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장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력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열순환 마사지 '열기왕성'**  
케이블 옥아 TV, 10/7-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불교의식(범음·범패), 기악학인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법(속성과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 1통  
입학원서 ..... 1통  
반명함사진 3매 ..... 3통

■ 문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 法人 **일승불교대학**